

소개와 평가 고루 갖춘 정보제공자

논쟁적 복수서평을 좀더 강화하길

정과리

문학평론가 · 충남대 불문과 교수

책의 물량은 무한정 늘어나고 있는데 그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물리적 여백은 좀처럼 늘리기가 쉽지 않다. 문화적인 것의 팽대로 이름붙일 수 있는 90년대 이후 출판 수용 공간의 처지가 그렇다. 서점에 나가면 책이 가지런히 꽂혀 있는 게 아니라 이곳저곳에 무더기로 쌓여 있다. 게다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법.

작가들까지 편승한 문화산업의 요란한 축제 속에 불만만 책을 찾지란 점점 더 어려워져가고 있다. 그리고, 또 서점의 고객 서비스는 70년대 이후 거의 10%도 개선되지 않았다. 무뚝뚝한 것도 문제지만, 책을 제대로 알고 찾아주는 매장 직원을 만나기가 힘들다. 발달한 것은 책도둑 방지 시스템뿐이다.

그러니 서점에 나가기가 싫어진다. 아주 급한 책이 아니라면 대개는 통신망 주문으로 책을 구입하게 된 지가 꽤 오래된다. 교통지옥에 시달리지 않아도 되지, 꼴사나운 서점 꼴을 안 봐도 되지 이 얼마나 좋은가? 직원의 불친절을 안 당해도 되니, 불역낙호(不亦樂乎)야? 다만, 통신 주문의 결정적인 허점이 하나 있는데, 직접 책을 검토할 수가 없다는 것이 그것이다. 때문에, 책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줄 수 있는 서평지가 요긴한데 《출판저널》은 그 점에서 가장 적합한 정보제공자가 아닐 수 없다.

우선 때마다 발행된 모든 도서의 목록을 볼 수가 있다. 다음, 비교적 다양하게 선정된 '읽을 만한 책'들에 대한 총평을 읽을 수가 있다. 그리고 출판문화의 현황에 대한 보고서를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출판저널》은 서평지가 필요로 하고 있는 삼위일체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총평이며 보고서며 그 수준이 비교적 높다. 짧은 글들이긴 하지만 대체로 소개와 평가를 골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을 사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잘 도와준다.

출판계의 공익자금으로 발행되는 잡지이기 때문에 편향성이 없다는 것도 보이지 않는 미덕이다. 아마도 가끔 시도하고 있는 논쟁적 복수 서평을 좀더 강화하면 책에 대한 생각의 폭을 더욱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현재 일반 독자들의 독후감으로만 채워지고 있는 책 수용 현황에 대한

정보를 유통공간에 대한 시장조사와 독자들에게 대한 설문조사 등 상시적인 통계조사와 분석으로까지 확대한다면, 출판의 생산 부문뿐 아니라 수용 부문에 대한 성찰의 장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아쉬운 것은 《출판저널》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고급한 서평지가 없다는 것이다. 현재 이에 대응하는 서평지는 《도서신문》 하나뿐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도서신문》은 《출판저널》에 비해 좀더 상업적이다. 《도서신문》은 대중지에, 《출판저널》은 교양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서평문화가 제대로 서려면 대중지, 교양지 외에 신문서평지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나는 바다이유가 창간한 프랑스의 권위있는 서평지 《비평(Critique)》을 염두에 두고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출판 현황의 전반적인 정보 제공이 아니라, 편집위원들이 나름대로 선정한 소수의 좋은 책들에 대해 각 방면의 전문가들이 본격적인 분석과 해석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잡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다. 제단법인 '한국출판금고'에서 발행하는 《출판저널》에게 그런 일은 어울리지 않을 것이다.

편향적이라는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그러저럭 맡아준 《오늘의 책》이 있었는데, 한 출판사가 그 일을 떠맡기에는 무리였던 지 자진 폐간하고 말았다. 나는 국가가 그 일을 (물론 오직 재정부만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경제와 공업을 초미의 관심사로 여겨 왔던 한국의 정부는 실망스럽게도 전혀 문화적이지가 못했고, 지금도 여전히 못하다. ❖

책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기분

모든 책을 경험한 듯 편리한 환상에

정진홍

서울대 교수 · 종교학

나는 분명히 이러한 태도가 옳은 것이 아니라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대체로 책을 건성 건성 읽는다. 꼼꼼히 읽는 책은 몇종 되지 않는다. 당연히 전문서적들을 그렇게 다루는데 그밖의 책들은 심심풀이라고 해야 할 만큼 성의없이 훑는다. 잡지라 일컬어지는 따위의 책들은 아무리 두꺼워도 아마 한권에 20분 정도 할애하면 아주 넉넉하다.

제가 전문영역을 다루는 잡지도 그렇게 본다. 오랜 경험의 결과라고 변명하고 싶은데, 어떤 영역의 것이든 잡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책들에서 내가 얻는 것은 그 안에 담긴 여러 글이 펼치는 내용보다 그 글들의 표제자체에서 느끼는 어떤 상(像)이다. 나는 그것을 내 나름대로 재구성하여 스스로 지닌다. 참 어처구니없는 책읽기인 줄 모르지 않지만, 그러한 책읽기를 통하여 별로 실수하거나 손해본 적은 없다고 믿는다.

《출판저널》을 읽은 지 여러 해가 되었다. 그런데 격주로 한 번 만나는 이 책은 내 잡지읽기를 조금 바꾸어 놓고 있어 나 자신도 그러한 내게 흥미롭다. 우선 나는 이 책을 받으면 그 표지부터 본다. 아니, 보는 것이 아니라 읽는다. 표지를 읽는 경험은 내게 흔하지 않다. 그런데 이 책을 나는 그렇게 만난다. 표지를 넘기면서 나는 '출판저널 칼럼'을 꼭 읽는다. 나는 이 잡지가 전해주는 책들을 만나기 전에 책의 모태인 출판문화의 정경을 그 글을 통해 그린다.

새로운 풍경 만나기는 내게 출판의 자궁에 대한 생태학적 조망을 갖게 한다. 물론 나는 그 정경의 출산과 성장과 질병과 때로는 노쇠의 쓸쓸한 낙조조차 만난다. 그 만남을 입문식으로 삼으면서 나는 마침내 주르르 쏟아지는 책들의 여울을 흐른다. 나는 그야말로 동서고금의, 그리고 특별히 지금 여기에서 태어난 책들의 소용돌이에 빠지는 데, 그 기분이 싫지 않다.

나는 우선 책 뚜껑을 여는 긴장을 즐긴다. 그것은 미지와 의 만남이 갖는 설렘을 닮은 그런 것이라고 말해도 좋다. 그 긴장은 자연스레 책훑어보기에 이른다. 더구나 낯선 지평에서 윤곽을 드러내는 웅기종기한 마을들은 주마간산의 태도를 허락하지 않는다. 논문초, 특집, 출판화제, 화제의 책, 얼굴, 에세이 특선, 책 읽는 사람, 출판자

료, 해외신간 리뷰, 재미있는 기획산책, 서평, 정보라이트, 책갈피 산책, 이 책 그 사람, 새책 흐름, 새 책 속으로, 새로 나온 책, 출판인에게 띄우는 편지...나는 어쩔 수 없이 멈춤을 점철하면서 울타리 안에 있는 모습들, 이를테면 거기 정리된 언어의 인테리어, 이미저리의 호흡, 나무끼는 꿈의 결을 더듬는다. 틀림없이 강요된 책들여다보기 작업인데 피곤하지 않다.

나는 나답지 않게 20분을 훨씬 넘는 시간을 이 잡지를 읽는 데 소비한다. 그런데 이것이 나를 때로 후회스럽게 한다. 내 책읽기 태도를 스스로 배신했다는 회한도 없지 않으리라. 그러나 그렇게 내가 행한 책들여다보기와 책훑어 보기가 《출판저널》의 주술이 낳은 산물이라는 사실을 나도 모르게 확인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그 계기에서 나는 기만당했다는 자의식을 가지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 답답하지만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마침내 나는 《출판저널》을 통해 모든 책에 대한, 적어도 그 저널이 그 호에서 신고 있는 책들을 다 읽고 터득했다고 하는 편리한 환상을 지니게 되는데, 그것은 미신이다.

그래서 나는 《출판저널》을 읽을 때마다 이러한 잡지는 아예 읽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곤 한다. ❖



나를 일깨우는 이미지 인쇄정보

그림 너머 문장의 관념 읽기

이상일

성균관대 교수·독문학

책으로 대표되는 인쇄매체에 매달려 살아 온 우리 세대는 이미지의 영상매체가 영미답지 않다. 그렇다고 이미지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는 딱딱한 관념의 껍질에 갇혀 있지도 못하다.

내가 꿈꾸는 것은 관념의 영상화이다. 혹은 그 총체화라고 할까. 영상매체의 정보를 이미지로 옮겨서 전달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 것이다. 그 가운데 하나가 《출판저널》의 촉각과 아이디어와 편집방법이다.

부드러운 편집의 촉각과 그에 걸려드는 새시대의 정보를 아이디어화하고 글로 쓰게 해서 읽게 하는 편집방향에서 나는 나처럼 활자세계를 벗어나 그림세계로 거닐고 싶어 하는 잠재의식을 그대로 달래주는 부드러운 손길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것이 《출판저널》이라는 제호가 주는 딱딱한 관념을 이미지화하는 살아 있는 작업의 흔적이다. 그래서 매호마다 나는 표지의 이미지-그것이 인물사진이든 관념의 영상이든간에 일단 표지의 그림에서 역으로 매호마다의 관념, 그 주제를 추적한다.

그런 다음에 장수를 넘기면서 출판계의 어떤 흐름이 그 촉각에 걸려 혼돈의 바다에서 건져 올려지고, 자료들은 어떤 아이디어로 활자화되어 글로 엮여 나갔는지 표제어들을 훑는다. 말하자면 표제로 묶인 문장들

이 나에게 그림을 제시한다. 관념이 그림으로 바뀌는 것이다.

편집, 레이아웃이 그림 그리기 같다. 그 그림·영상 너머로 나는 글·문장의 관념을 읽는다. 그림이 좋지 않으면 글을 읽지 않고 관념을 쌓지 않는다. 그림이 매력적이면 글을 읽고 쌓이는 관념과 버리는 관념을 따로 저장한다. 그렇게 하여 나의 전공과 별로 상관없는 책 정보가 나의 머리 속에 쌓이고, 어떤 인쇄정보가 지금 이 나라에서, 혹은 전세계적으로 퍼지고 있는가가 그림 그려진다. 그러면 내 전공과 상관없는 책 내용이 나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고 나의 지식욕을 달군다.

그와 동시에 젊은 시절 이런 길잡이가 없었던 것을 한탄한다. 전문바보가 되어가는 나를 일깨우는 이미지 인쇄정보가 나의 편향된 시각을 바로잡기 때문에 어쩌다 쓸데없는 지적 방향까지 가야 하는 나의 월장(越牆)도 일찍이 이런 길잡이가 있었다더라면 더 젊은 나이에 지적 충족으로 방향을 끝냈을지도 모른다는 아쉬움에 맞닿는다.

좋은 시대인지 나쁜 시대인지도 모른 채 우리는 살고 있다. 좋은 책이 나오고 좋은 길잡이가 있는 시대는 좋은 시대일 것이다. 그러나 영상매체에 쫓겨나는 논리와 관념의 활자매체의 시대는 별로 좋아보이지 않는다. 어떻게 보면 미덥지 않은 시대를 살면서 확고한 신념조차 지녀 보지 못한 나는 그림과 글이 조화를 이루는 시대를 살고 싶다. 《출판저널》이 나의 그런 작은 기도를 들어 주면서 200호를 맞았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좋은 시대를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살다보면 그것이 그림인지 글인지조차 모르게 된다. 그럴 때 글 속에 그림을 담으며 우리의 딱딱해진 사고와 관념을 부드럽게 기를질 치는 그런 여유는 그림 가운데 글을 담는 것이다.

그렇게 이미지로 편집되는 인쇄정보 가운데는 아직도 믿음직한 확신이 살아있는 법이다. ❖

한권의 책도 제대로 다루는 잡지

출판인들과의 동반자의식 확인하기도

최윤

소설가·서강대 불문과 교수

이미 육십여년 전에 혁슬리는 이렇게 말했다.

“백년 전에는 읽을거리, 볼거리가 한 면이 출판되었다면, 오늘날에는 20면, 100면이 출판된다. 그러나 백년 전에는 한 사람의 예술적인 재능이 있었다면 오늘날에는 두 명의 예술적 재능이 있을 뿐이다.”

이것은 꼭 예술적 출판물에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닐 것이다. 이것은 모든 출판물의 질적인 관찰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1930년대에 이렇게 한탄했던 혁슬리가 오늘날의 출판의 총면수를 보면 또 얼마나 놀랄 것인가. 출판의 양적 팽창시대, 출판의 대중화시대에 나침반을 잃고 “상대적으로 보나 절대적으로 보나 조악한 예술작품의 생산은 예전보다 훨씬 증가했다”고 한탄하는 사람은 혁슬리만은 아닐 것이다. 예술작품에 출판물이라는 말을 넣어도 상황은 유사하리라.

이러한 상황에서 책 정보지가 등장하는 것은 당연한 사건이다. 우리에게 책 정보지가 등장한 것은 얼마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벌써 그 숫자는 출판의 양적 증가와 정비례해서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본다. 개중에는 전문적이며 독립적인 정보가 있는가 하면, 서점이나 출판사들의 홍보지 역할을 대신하는 것도 상당수를 차지한다.

여기서는 구구히 밝힐 수 없는 개인적이면서도 감정적인 불편함으로 나는 더 이상 책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 서점 출입하는 일을 멈춘지 오래다. 그것이 가능하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전문정보지나 신문이나 잡지의 신간 안내란이 웬만큼 기능을 하는 시점과 일치하지 않다가 생각된다. 나는 한 때는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와 적어도 삼분의 일 정도를 읽어보고서야 사는 불신의 습관이 있었는데, 몇몇 서적 전문지를 보게 되면서부터 이 중간적인 불필요한 절차는 저절로 없어지게 됐다.

《출판저널》은 아마도 내가 제일 먼저 구체적으로 접한 책 정보지가 아닌가 싶다. 처음 이 잡지가 나왔을 때 나는 그 놀랍도록 싼 가격에 마음이 끌렸던 기억이 있는데, 당시 거의 유일무이했던 이 격주간 잡지의 진짜 장점은 시간이 지나 비슷한 유형의 정

보지들이 홍수처럼 쏟아져 나오는 최근에 더 돋보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내가 《출판저널》에서 먼저 보았던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듯이 서평란이었다. 균형있는 책의 선정, 그리고 대부분 전문가에게 의뢰되는 이 난에서 한권의 책이 제대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역설적이게도 그리 흔한 일이 아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는 한가지 이상한 결여가 이 잡지를 통해 채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흔히들 우리나라에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에디터’가 없다는 말을 한다. 가깝게든 멀게든 책을 쓰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실 이 점을 절실하게 느낀다. 그 모습은 아주 기이하게 상업적이거나 권위적이어서 그 얼굴은, 실체는 사라지고 비현실적인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다. 그런데 《출판저널》의 여러 기획 기사를 통해 내가 서서히 확인하게 된 것은 바로 그 없다고 하는 출판인(들)과 그들의 전체적인 기획의 구체화된 모습이다. 꼭 출판인 개개인의 모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나라의 문화에서 출판을 둘러싼 많은 갈등과 기획, 논쟁이 되는 주제들을 읽으면서 내가 확인한 것은 책을 쓰는 사람과 출판인들이 공동의 운명을 나누어 갖고 있다는 동반자의식이다.

가끔 개인적으로 출판인들을 만날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 직업의식에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는데, 그 비슷한 느낌을 출판에 관한 공론화한 기사에서도 느낀다. 이런 건 물론 원칙적으로 그래야 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쓰는 사람은 다소간 의도적으로 출판이라는 물리적인 과정을 간과하고 싶어하며, 또 책을 만드는 사람은 가속화되는 통속지향의 상황에 밀려 어렵사리 출판된 책의 생명이나 미래에 대해 짐짓 무책임해지고 싶어한다. 그러나 저술과 출판이라는 동전의 양면같은 기획에 대해 알게 되면 될수록 그러한 게으른 간과가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조금은 예견하게 된다. 즉 책에 관한 한 상호 방기는 책의 죽음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200호를 맞는 《출판저널》이 지금까지 그려왔듯이 앞으로도 고집스럽게 견제하기를 바란다. ❖

